

## 연결된 바다들

### - 바다의 권리를 말하는 여섯 개의 시선과 질문들 -

그린씨<sup>1</sup>, 김보은<sup>2</sup>, 김소은<sup>3</sup>, 신수연<sup>4</sup>, 신주희<sup>5</sup>, 홍상희<sup>6</sup>

[<sup>1</sup>혼디자왈, 초록씨그린씨/생태교육가, 디자이너 <sup>2</sup>어라운드랩디자인스튜디오/디자이너,  
<sup>3</sup>어라운드랩디자인스튜디오/디자이너, <sup>4</sup>해양시민과학센터파란/활동가,  
<sup>5</sup>해양시민과학센터파란/활동가, <sup>6</sup>돌핀맨/다큐작가]

## 1. 서론

### 1) 연구의 배경

본 연구모임의 구성원들은 최근 3~10년 사이 바다를 둘러싼 섬, 제주도에 거주하거나 활동하고 있는 바다의 대변자로 목소리를 높이는 해양활동가이며, 바다를 주체적인 존재로서 어떻게 표현할지 고민하는 그린 디자이너 그리고 바다를 이해하고 더 많은 이들과 연결하고 싶은 생태교육가, 다큐멘터리로 바다의 권리를 전달해 온 다큐멘터리 작가로 구성되어 있다. 우리는 바다가 단순한 필요와 자원으로서의 관계를 넘어, 생명력 넘치는 바다를 바라며 절실한 마음으로 '우리는 어떻게 바다의 권리를 대변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통해 바다의 권리를 말하는 새로운 시각(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모이게 되었다.

### 2) 연구의 목적

절박하고 절실하게 외치는 '바다의 권리와 기후위기'

우리가 살아가는 지구는 인간의 노력이나 어떠한 기술로도 회복하기 어려운, 심각하게 파괴되어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현실에서 무관심함을 느낀다. 이에 제주, 바다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그린디자이너, 활동가, 생태교육가, 다큐멘터리 작가인 우리는 최근 국내에서 자연의 법적 권리와 생태법인 개념이 등장하며 '바다를 하나의 법적 주체로 인정해야 한다'는 논의와 '자연을 독립적인 법적 인격체로 인정할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을 중심으로 자연(바다)을 단순한 자원이 아닌 하나의 독립된 법적 존재로서 권리를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나누며, 구성원들의 전문 분야와 경험을 통해 바다와 바다를 둘러싸고 있는 활동과 상황을 공유하고, 바다의 권리를 효과적으로 대변하기 위한 새로운 시선과 방식을 탐구하고자 한다.

'연결된 바다들-연구모임'은 4월부터 10월까지 월 1회 이상 오프라인 모임으로 진행하는 것을 목표로 총 7회의 온·오프라인 모임을 진행하였으며, 각 분야의 주제(시선)를 중심으로 발제자가 활동한 지역에 모여, 각 전문 분야와 경험을 토대로 세미나 혹은 워크숍 형태로 진행되었다.

## 2. 본론

### 1) 모임 조직 방식

연구모임 구성원들과 온라인 회의를 통해 각 분야의 발제 방향을 논의하고, 각자의 분야(다큐멘터리, 디자인, 생태교육, 시민과학, 정책 등)에서 바다(자연)와 어떻게 관계 맺고 있는지를 중심으로 자유롭게 발표 주제를 정하였다.

모임 조직은 느슨하되 유기적인 흐름을 갖도록 구성되었고, 발표 내용은 각 분야의 다양성이 잘 드러나도록 활동 소개 및 '시선'이라는 키워드에 맞춰 사유와 질문을 이어갔다. 모임에는 별도의 진행자 없이 순차적으로 발표를 진행하고, 자유로운 질의응답과 대화를 통해 서로의 시선을 연결, 교차시킬 수 있도록 구성했다.

[표1] 연결된 바다들 운영 목록

일시	장소	발표자	주제
4월	서귀포시 해양시민과학센터 과란	해양시민과학센터 과란  신수연, 황준서	시선1. 자연이 권리를 가지면 세상은 어떻게 달라질까
5월	제주시 조천읍 선흘리 <동백동산>, 숲밭 <다음에 올 너에게>	혼디자왈, 초록씨그린씨  그린씨(이진아)	시선2. 어쩌다 섬, 바다에 둘러싸여 살아가는 우리는 바다의 목소리를 듣지 못하게 되었을까?
6월	서귀포시 어라운드랩 디자인스튜디오	어라운드랩 디자인스튜디오  김소은	시선3. 사회적 자연과 야생의 자연, 그 사이의 상상력은 무엇으로 채울 수 있을까?
8월	온라인 줌(ZOOM)	해양시민과학센터 과란  신주희	시선4. 우리는 어쩌다 바다의 편이 되었나? 바다를 감각하기에서 권리를 대변하기까지
9월	서귀포시 안덕면 <산토샤>	돌핀맨, 다큐멘터리작가  홍상희	시선5. 세상을 다르게 보는 하나의 &시선&을 찾아가는 여정_다큐멘터리적 질문의 시작
9월	서귀포시 안덕면 <산토샤>	어라운드랩 디자인스튜디오  김보은	시선6. 편견있는 이미지 : 좋은 이미지란 무엇인가
10월	서귀포시 강정동 <공간[ ]>	시선 1~6 발제자들과 청취자	[바다수다회] 바다에 둘러 앉아, 여섯 개의 시선과 질문들을 주고 받는 시간.

## 2) 모임별 발표 및 내용

### (1) 2025년 4월 연결된 바다들 모임

#### 시선1. 자연이 권리를 가지면 세상은 어떻게 달라질까?

기후생태 위기 상황에서 생태법인 등 자연의 권리 확대 움직임은 인간뿐 아니라 비인간 존재 모두를 고유한 권리를 가진 주체로 인식하는 새로운 법적 패러다임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움직임이 법제도에 반영되었을 때, '자연은 실제로 법적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을까? 이것은 우리 사회

에 어떠한 인식의 변화와 새로운 시각을 줄 수 있을까?’

제주도는 남방큰돌고래를 생태법인으로 지정해 법적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화를 추진 중이다. 2023년부터 학계, 법조계, 전문가로 구성된 워킹그룹을 운영하며 두 가지 안이 도출됐다. 하나는 남방큰돌고래에 직접 법인격을 부여하는 방식이고, 다른 하나는 도지사가 도의회 동의를 받아 특정 생물종이나 생태계를 생태법인으로 창설하는 방식이다. 이중 두번째 안을 바탕으로 제주도정은 2024년 국회에 법안을 요청하고, 2025년까지 남방큰돌고래를 생태법인 1호로 지정할 계획을 발표했다.

2024년 12월, 민주당 위성곤 의원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생태법인의 설립 및 지정(제361조의2), 권리와 의무(제361조의3), 지원위원회 구성(제361조의4), 재원 마련(제361조의5) 등을 포함한다. 생태법인은 서식지 보호, 환경 침해에 대한 구제 요청, 개발 제한 요구, 지속 가능한 자원 활용 촉진 등의 권리를 가지며, 생태계 균형 유지, 생물다양성 보존, 인간과의 공존 추구 등의 의무를 진다. 권리와 의무는 ‘집합적’으로 행사되며, 도지사가 지정한 관리인을 통해 법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지원위원회는 생태법인의 권리 보호, 의무 이행 지원, 권리 침해시 대응, 정책 자문 등의 역할을 하며, 지역 주민, 생태 전문가, 환경단체 대표,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다.

자연의 권리의 구체적 제도로서 국내 첫 ‘생태법인’ 도입에서 과연 ‘자연’은 무엇이며, 이는 본래적 목적과 수단적 목적 중에 어디에 해당되는 것일까? 개정안에는 ‘제361조의2 (생태법인의 설립 및 지정)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정의 필요가 없게 된 경우 그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특정 조건에서 ‘해제’할 수 있는 자연의 권리라면 이는 인간의 권리 다음으로 위치하는 것인가? 권리가 부여된 조건하에서는 해당 권리를 침해하는 인간 행위를 제한하거나 현상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가? 종(집단)이 존속할 권리인가, 개별 주체의 권리인가? 그럴 수 없다면 권리의 보호와 증진이 어려운, 사실상 단지 선언에 불과한 것이 아닐까? 소송의 원고 적격을 얻을 수 있다는 점 이외에도 제주특별자치도의 국내 1호 ‘생태법인’의 제도화는 우리 사회에 여러 질문과 가능성, 해석을 위한 공론화의 과제를 던지고 있다.

다른 한편, 2025년 4월 11일 해양수산부는 제주 신도리 주변해역을 멸종위기종인 남방큰돌고래의 주요 서식지임을 근거로 ‘해양생물보호구역’으로 지정·고시했다. 현 정부의 국정과제이자 국제적 합의 사항인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GBF)’의 공동목표로 진행 중인 해양보호구역의 확대도 진행 중이다. 보호구역의 확대, 생태법인의 제도화는 바다속 존재들의 이동할 권리, 위협받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고, 실질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지 우리는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존재들의 대변인으로 곳곳에서 목소리를 내기로 한다.

**(2) 2025년 5월 연결된 바다들 모임**

**시선2. 어쩌다 섬, 바다에 둘러싸여 살아가는 우리는 ‘바다의 목소리’를 듣지 못하게 되었을까?**

1960년대 초반 국가 정책과 더불어 제주도 관광이 본격적으로 활성화되었다. 제주의 바다는 그렇게 인간을 위한 해양자원을 얻는 공간이자, 휴양과 관광의 공간으로 활성화되었다. 바닷가 가까이 해안 사구를 덮는 해안도로가 생겨났고, 그 도로를 따라 관광 숙소와 카페, 리조트들도 덮이기 시작했다. 그렇게 바닷가마을들은 관광객을 위한 관광지가 되어갔고, 지금도 여전히 진행 중이다. 이로 인해 바다를 의지하여 살아가던 사람들은 마을을 떠나기 시작했다. 해안 사구 등이 사라지면서 모래밭에 알을 낳던 새들과 거북이들도 점점 사라졌다. 더 이상 살 수 없는 곳이 되어버린, 관광객과 관광객을 위한 공간으로의 바다, 우리는 바다로부터 연결된 생명 감각을 잃어가기 시작했다. 이에, 연구모임의 참여자와 함께 생명감각 워크숍 <물의 여행>을 진행하며 자연스럽게 생명으로

서 우리가 살아가고, 감각하고 있는지 질문하였다.

① 생태+관광은 함께 할 수 있을까?

우리는 생태(자연)를 어떠한 목적으로 대하고 있는가?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다. 이미 우리는 꽤 오랫동안 스스로 창조한 문명과 도시에서의 삶을 영유함으로써 자연으로의 인간, 바다의 생명과 함께 살아가는 감각을 잃어가게 되었다. 세계자연유산 제주도는 그 이름이 무색할 정도로 심각하게 인간 중심의 관광의 섬으로 전락, 전복되어 사라져가는 중이다.

최근에는 제주 바닷가마을을 중심으로 ‘생태관광’이라 불리는 대규모 행사와 프로그램이 열리면서, 이름만 생태적인 일회성, 일회용 행사들이 많아졌다. 그 풍경을 마주하고 있으면 생명의 존엄에 대한 질문이 꼬리를 물고 이어진다. 즉 하루의 행사를 위해 대량의 일회용 현수막, 소식지, 물품을 소비하며 참여한 사람들이 떠난 자리마다 쓰레기들이 넘쳤다. 이에 생태예술, 교육가로 활동하고 있는 발제자는 2010년 숲 해설사 교육을 하며 방문한 독일과 스위스의 숲 교육 및 행사를 소개하며, 그들이 숲을 대하는 태도를 이야기하였다. 그들은 숲의 계절적/환경적 상황을 고려하여 참여자의 규모나 인원을 제한하고, 불필요한 행사용품 소비를 자제하여 숲의 보호와 생태를 보존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었다.

② 생명의 바다를 회복하기 위해, 사람들에게 ‘바다의 목소리’를 어떻게 전달해야 할까?

세계자연유산 제주도로서의 ‘생태+관광’의 이름으로 진행되는 인간 중심의 대규모 행사, 일회성 축제를 반대하며 계절적, 생태적 상황을 고려한 시민과학 참여 프로그램 및 생태 보호와 보존을 중심으로 한 생태 감각 교육을 제안한다. 즉, 기후위기시대에 우리에게 더 이상 생태+관광이 아닌 생태+함께 살아가기를 위한 생태 감각 활동이 절실히 필요하다. 생태 감각 활동 및 교육을 의무(제도)화하여 제주도를 찾아오는 관광객을 비롯한 제주도민이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크고 작은 방식의 생태 감각 활동을 진행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제주도 내의 생태환경단체를 중심으로 한 시민과학 및 생태 감각 활동 네트워크 혹은 조직을 구성하고, 세계자연유산 제주본부 및 지자체의 예산을 확충 및 지원이 요구되어진다.

(3) 2025년 6월 연결된 바다들 모임

시선3. 사회적 자연과 야생의 자연, 그 사이의 상상력은 무엇으로 채울 수 있을까?

최명애는 『재야생화: 인류세의 미래를 위한 대담한 사상』<sup>1)</sup>에서 인류세 속 자연을 두 가지 상반된 모습으로 상상해왔다고 지적한다. 하나는 인간에 의해 만들어진 사회적 존재로서의 자연(가축, 농작물)이고, 다른 하나는 인간의 손이 닿지 않은 존재로서의 자연(보호지역 내 동식물)이다. 그는 이러한 이분법적 자연관을 비판하며, 그 경계 사이를 ‘재야생화(rewilding)’의 가능성으로 상상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각자의 활동에서 그 사이의 상상력을 무엇으로 채울 수 있을까?

이번 연구모임의 첫 회차에서는 자연의 권리를 제도적으로 어떻게 담아낼 수 있는지 살펴보았다. 두 번째 회차에서는 습지보호구역인 동백동산 숲에 직접 들어가 자연을 경험했다. 그 과정에서 깨달은 것은, 제도도 결국 사람이 만드는 것이므로 무엇보다 사람들의 인식과 감각이 함께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이번 발제에서는 ‘그 사이의 자연은 어디인가?’, ‘각자의 활동에서 자연의 권리를 위해 어떻게 응답<sup>2)</sup>하고 있는가?’, ‘응답의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라는 세 가지 질문을 통해 실제 경험과 연결해 보고자 한다.

1) 강현석 외, 『제로의 책』, 뚝과뚝, 2022, 50-51

2) 도나 헤어웨이의 응답-능력(response - ability)에서 ‘응답’이라는 표현을 가져왔다.

‘그 사이의 공간’은 제도적 측면에서 찾자면 자연공존지역(OECM, Other Effective Area-based Conservation Measures)을 들 수 있다. OECM은 보호지역에는 속하지 않지만, 생물다양성 보전을 목표로 효과적으로 관리되는 지역을 의미한다. 그러나 본래 자연을 훼손하고 연출된 자연을 ‘공존’으로 볼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의식과, 이러한 제도가 그린워싱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한다.

또한, 반달가슴곰 ‘오삼이’의 지리산 탈출 사건은, 인간이 만든 경계가 얼마나 자연의 현실과 괴리되어 있는지를 보여준다. 따라서 ‘그 사이의 공간’은 단순히 행정적 영역이 아니라, 우리가 자연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성찰하는 지점으로 이해할 수 있다. 주민들이 “이젠 나무를 위한 싸움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말한 경험은, 사고의 중심이 변화하였음을 느끼게 한다. 그것은 인간뿐 아니라 비인간 존재의 목소리까지 인정되는 공간의 가능성을 상상하게 했다.

다음으로는 『응답의 정치: 동물권 너머의 동물 정치』에서 제시된 ‘응답 능력(response-ability)’ 개념을 실제로 발휘한 사례를 살펴보고, 각자의 활동 속 응답 사례를 공유하였다. 시민과학 프로그램을 통해 지속적인 관찰이 자연과의 관계를 가장 효과적으로 변화시킨다는 사실을 목격한 활동가는, 더 많은 사람들이 자연을 관찰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질문을 던졌다.

다큐멘터리 창작자는 관객의 반응을 통해 자연에 공감하는 ‘감각’의 변화를 체감한다고 했다. 또한 이러한 감각을 불러일으키는 콘텐츠 사례를 공유하며 자연과 관계를 맺고 이를 드러내는 창작자의 ‘가이드’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디자이너는 생산 과정이 블랙박스화되면서 소비자가 상품이 자연으로부터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상상하기 어려워진다는 문제를 인식하고, 책 한 권이 얼마나 많은 자연 자원을 통해 제작되는지 알 수 있도록 생산 과정을 디자인에 드러내도록 하는 노력을 공유했다.

이번 논의는 각자가 맺고 있는 ‘관계의 방식’을 돌아보는 과정이었다. 그리고 그것을 드러냄으로써 공유되는 ‘감각’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다. 자신의 것이 아닌 슬픔을 상상하고, 직접적이지 않은 관계 속에서도 자연과의 연결을 발견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느꼈다. 그렇게 자연과 인간, 인간과 인간 사이의 감각과 응답은 서로의 감각을 배우고 이어가며 확장되어 가는 과정임을 다시금 생각할 수 있었다.

**(4) 2025년 8월 연결된 바다들 모임**

**시선4. 우리는 어쩌다 바다의 편이 되었나? 바다를 감각하기에서 권리를 대변하기까지**

환경 활동을 하며 가장 답답한 순간은 ‘우리는 자연을 보호해야 합니다. 자연은 자연 그대로 두어야 합니다’라는 아주 당연한 명제를 설명해야 할 때이다. 인간 중심의 자본주의의 시대에서 자연은 인간이 마음껏 이용할 수 있으며, 편리를 위해 개선해야 하는 공간이고, 개발을 위해 착취해야 하는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이 모든 행위에 자연의 입장과 바다의 권리는 어디에도 없다. 그러나 ‘바다가 남긴 말’을 주워 담겠다고 모인 우리 일곱 명은 어쩌서인지 이미 바다의 편이었다. 나는 우리와 같은 사람들(지극히 보통인 사람들)이 어떤 경험들을 통해 바다와 자연의 권리를 지키고자 옹호하는 사람들이 되었는지 궁금했다. 그래서 그 여정을 연결하기 위한 나의 질문들을 나열했다. 우선 모임 전 내가 가졌던 5가지의 질문은 아래와 같다.

① 자연을 지키려는 사람들 vs 자연을 이용하려는 사람들! 자연을 소중히 하는 마음은 어디에서 올까?

- ② 아름다움이 자연을 지키는 이유가 될 수 있을까? 그렇다면 아름답지 않은 건 지키지 않아도 되는 걸까?
- ③ 바다명, 물명, 과도명은 어째서 기분이 좋아질까? 우리는 왜 자연으로부터 감탄하고, 치유를 받을까?
- ④ 어찌다 바다의 안타까움이 나의 안타까움이 되었을까?
- ⑤ 시민과학으로 만나는 사람들이 한순간에 사랑에 빠지게 하는 힘은 뭘까? 시민과학 활동은 자연의 권리를 이해하게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자연의 아름다움을 경험하는 것으로부터 자연을 옹호하는 행동을 행하기까지의 단계를 몇 단계로 짚어보았다. ①미적 경험(애착 형성) → ②숭고와 에피파니(세계관 해체) → ③참여적 관찰(객관적 이해) → ④내재적 가치 인식(윤리적 의무감) → ⑤자연의 권리 옹호(법적 변혁 추구)의 5 단계이다. 그리고 각 단계를 일상의 언어로 다시 서로에게 묻고 답해보았다.

우리의 경험들을 공유하고 “지키고자 하는 것을 지키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라는 마지막 질문에 우리의 답변은 ‘사랑’과 ‘연대’라는 키워드로 수렴되었다. 주희는 “‘사랑하는 마음’이 ‘이해하지 못해도 용서하고, 보듬게 한다’며 ‘책임지는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 수연이 말한 “이성으로 비판하되 의지로 낙관하기”는 개인의 감정에 머무르지 않기를 요청하며, ‘지속하는 마음을 지속할 수 있게 해주는 친구들(소은)’, ‘지치고 힘들 때 기댈 수 있는 언덕-바다-숲 같은 친구(그린씨)’, ‘관심과 관계, 확장(보은)’, ‘좋은 걸 전염시키기(상희)’라는 답변은 공동체적 실천, 연대로 확장되었다.

‘우리는 어찌다 바다의 편이 되었나?’라는 질문은 사실 관계에 대한 질문이었다. 자연과 우리가 ‘이용, 착취의 관계’에서 ‘존중하고 보호해야 할 관계’로 어떻게 재정립되어 가는지, 그것이 궁금했다. 그 관계의 시작이 자연의 아름다움을 감각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했다. 자연 앞에서 압도되었던 경험으로부터 자연에 대한 경외심과 숭고를 느끼고, 지혜를 얻었던 우리의 순간들을 속속들이 꺼내어 보고 싶었다. 시민과학을 통해 만나는 사람들이 점점(혹은 한순간에) 바다에 편에 선 것을 증언하며, 자연과 켜켜이 쌓인 경험들이 결국 우리를 바꾸어 놓게 될 것이라 이야기하고 싶었다. 그러니 우리는 자연과의 더 많은 관계를 쌓아야 하고 전복해야 하며, 그로 인해 생기는 이 울렁거림에 동참하자고. 그러다 보면 어느새 자연의 권리를 대변하는 더 많은 우리가 될 것이라 이야기했다.

**(5) 2025년 9월 연결된 바다들 모임**

**시선5. 세상을 다르게 보는 하나의 ‘시선’을 찾아가는 여정\_다큐멘터리적 질문의 시작**

이번 발제는 ‘다큐멘터리의 시선’을 주제로, 다큐멘터리가 질문을 통해 세상과 관객을 어떻게 연결하는지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단순히 사실을 전달하는데 그치지 않고, 그 사실 너머의 의미를 묻는 것이 다큐멘터리의 본질임을 강조하며, 질문이 현실에 감응하고 관객의 사고를 확장시키는 과정과 사례를 소개했다. 이어 다큐멘터리 작업자가 세상을 향해 던져야 할 세 가지 핵심 질문(무엇을 말할 것인가, 어떤 시선으로 말할 것인가, 누구와 어떻게 연결될 것인가)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했다. 발제 마지막에서는 이 질문들이 비단 다큐멘터리 작업자만의 것이 아니라, 각자의 삶에서 세상을 이해하고자 하는 모두에게 유효하다는 점을 짚으며, 자기 경험에 기반한 대화를 나누었다.

이러한 발제의 흐름을 바탕으로, 다큐멘터리가 어떤 방식으로 질문을 만들어내고, 그 질문이 어떻게 시선의 전환과 사회적 연결로 이어지는지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① 다큐멘터리의 시선: 질문을 만들어 내다

다큐멘터리 작업은 '현실에 대한 감응'에서 출발하며, '누군가에게 말 걸기 위해' 주제와 방향을 고민한다. 흔히 다큐멘터리를 '사실'을 기록하는 장르라고 생각하지만, 그 본질은 조금 다른 곳에 있다. 단순한 사실의 전달은 보도의 영역에 가깝다. 다큐멘터리가 추구하는 것은 사실 너머에 있는 무언가, 즉 관객과 세상 사이에 의미 있는 질문을 만들어내는 일이다.

예를 들어, 보도는 “바다가 뜨거워진다. 산호가 흘러내리고 있다.”와 같이 현상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데 집중하지만 다큐멘터리적 시선은 그 사실을 바탕으로 당신과 세상을 향해 묻는다. “뜨거워진 바다에서, 우리는 무엇을 잃고 있는 걸까?” 이 질문을 통해 관객은 현상을 그저 지켜보는 관찰자에서, 문제와 개인적으로 연결된 참여자로 변화한다.

다큐멘터리 『목소리들』(2025, 지혜원)은 이러한 질문의 힘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 작품은 4.3 사건의 희생자, 그중에서도 피해 규모와 세부 내용이 거의 알려지지 않은 여성 희생자들의 이야기를 담아낸다. 네 분의 할머니가 겪어야 했던 역사를 증언을 통해 되돌아고, 피해자 할머니 네 분의 목소리를 통해 깊은 상흔을 기록해하면서 영화는 ‘우리는 이 4.3사건을 어떻게 기억하고 응시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진다.

② 세상과 나를 연결하는 세 가지 질문

이처럼 다큐멘터리가 던지는 질문을 우리에게 더 깊은 사유를 가능하게 한다. 그리고 연결을 가능하게 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런 질문을 만들고, 자신만의 고유한 이야기로 발전시킬 수 있을까?

첫째, 무엇을 말할 것인가

바다는 수만 가지 이야기를 품고 있다. 그중 왜 나는 특정한 이야기에 마음이 끌리는가. 왜 수많은 해양 생물 중에서도 사라져가는 한 산호 이야기에 마음이 쓰이는가. 이 질문은 이야기의 출발점을 찾는 과정이 된다. 그것은 단순히 흥미로운 소재를 찾는 것을 넘어, 그 주제가 나에게 왜 절실하고 중요한지를 끊임없이 되묻는 내면의 탐색이다. 이야기에 진정성을 부여하는 것은 바로 이 ‘절실함’에서 나온다.

둘째, 어떤 시선으로 말할 것인가

동일한 주제라도 어떤 관점과 태도로 접근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이야기가 탄생한다. 뜨거워지는 바다를 해양 생태계의 변화를 보여주는 과학적 데이터의 집합으로 바라볼 수도 있고, 하얗게 죽어가는 산호의 고요한 비명으로 담아낼 수도 있으며, 삶의 터전을 잃어가는 어민의 깊은 주름과 한숨으로 그려낼 수도 있다. 어떤 시선을 선택하느냐는 곧 내가 세상에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의 방향을 결정하는 일이다.

셋째, 누구와 어떻게 연결될 것인가

나의 이야기는 궁극적으로 누구에게 닿기를 바라는가. 그리고 그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싶은가. 이 질문은 작업의 목표를 명확히 가리킨다. 또한 나의 이야기가 누군가의 마음에 가닿아 작은 파문을 일으키고,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감각을 일깨우며, 공감과 연대를 만들어내기를 바라는 진정성이 바로 이 질문에 담겨있다.

③ 세상을 바꾸는 질문의 힘

잘 만들어진 질문은 단순히 세상을 이해하는 도구를 넘어, 변화의 동력이 될 수 있다. 기존의 질

서에 균열을 내고, 우리가 미처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하며, 더 나은 미래를 상상하게 만든다. 질문할 수 있을 때, ‘다른’ 어떤 것이 보이기 시작하기 때문이다.

무엇을 말할 것인가 (주제), 어떤 시선으로 말할 것인가 (방향), 누구와 어떻게 연결될 것인가 (관계) 이 질문들은 비단 다큐멘터리 감독이나 작가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자신의 자리에서 세상을 이해하고, 이웃과 관계 맺으며, 더 나은 무언가를 만들어가고자 하는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물음 일지도 모른다. 그래서 이제, 당신에게 묻고 싶다. 당신이 세상에 던지고 싶은 세 가지 질문은 무엇인가? 아마도 그 질문을 찾는 바로 그곳에서, 당신의 이야기는 이미 시작되고 있을 것이다.

**(6) 2025년 9월 연결된 바다들 모임**

**시선6. 편견있는 이미지\_바다의 권리를 전하는 좋은 이미지란 무엇인가?**

누구나 이미지를 만들고 소비하는 시대다. 일상을 찍은 사진 이미지를 SNS에 올리는 것을 넘어 AI를 이용해 누구나 의도를 가진 이미지를 만들고 소비한다. AI는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수 억장의 이미지와 텍스트를 학습하고 사용자가 요청하는 이미지를 생성한다.

‘난민’이란 키워드를 포털사이트에 검색을 해본다. 검은 피부, 곱슬거리는 머리,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는 모습, 울부짖는 고된 표정 등이 보여진다. 우리는 이런 이미지들을 뇌에 저장하고 ‘난민’의 모습으로 기억한다. 2024년 말 기준으로 난민 규모가 큰 국가는 베네수엘라, 시리아, 아프가니스탄, 우크라이나 등이다.<sup>3)</sup> 이 통계를 보면, 난민은 다양한 국적과 인종을 가진 사람들이지만, 우리는 고정된 이미지로 ‘난민’의 모습을 기억하게 된다. 이러한 고정된 이미지들은 끊임없이 학습되고 재연되면서 사람들의 인식에도 영향을 끼치게 된다. 이러한 이미지의 재연으로 인해 이미지 당사자들을 향한 편견과 혐오가 강화될 수 있음을 우려하며 본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다.

**① 환경캠페인의 이미지**

환경캠페인에서도 많은 이미지들이 사용된다. 환경캠페인에 많이 사용되는 이미지 소구방법의 몇 가지 패턴을 살펴보고, 이미지로 인한 어떤 편견적인 시선을 가져올 수 있는지 살펴보았다.

첫째, 동물들의 의인화이다. 환경캠페인에서 어떤 지역의 개발을 막기 위해, 또는 어떤 동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동물을 캐릭터화하거나 웃는 얼굴, 손을 흔드는 듯한 모습 등 우리에게 친근한 모습으로 표현한다. 동물을 의인화하여 인간의 관점으로 해석함으로써, 과학적 객관성이 무시될 수 있다.<sup>4)</sup> 또한 동물이 인간처럼 느끼고 행동한다고 가정하면서 연구 설계나 윤리 판단이 이루어질 때 실제 동물의 삶과 처지를 오인할 수 있으며, 매력적이고 귀여운 동물들은 과도하게 강조되고, (인간의 관점에서) 덜 매력적인 종이나 생물군은 보호 대상으로서의 중요성이 간과될 위험이 있다.<sup>5)</sup>

둘째, 북극곰 이미지이다. 북극곰 이미지는 기후변화 커뮤니케이션에서 강력한 상징으로 많이 사용된다. 하지만, 북극곰 이미지는 나의 현실과는 동떨어진 이야기로 여겨지며, 기후변화의 복잡한 전 지구적 영향이나 사회·경제의 구조적인 문제들을 파악하지 못하고, 기후변화 경험을 편협하게 표현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최근에는 BBC와 가디언을 비롯한 여러 언론 매체에서는 의도적으로 북극곰 이미지의 사용을 자제하고 있다.<sup>6)</sup>

셋째, 순수한 자연과 오염된 도시의 이분법적 이미지이다. 도시와 자연의 대비를 극대화해 산업화

3) “Refugee Data Finder”, www.unhcr.org, (2025년 11월1일)  
 4) “The Problem of Anthropomorphization in the Study of Non-Human Animals”, www.eo.ica.ras.ru, (2025년 11월 1일)  
 5) M. Root-Bernstein외 3명, 2013, Anthropomorphized species as tools for conservation; utility beyond prosocial, intelligent and suffering species, Biodivers and Conservation, 22, 1577  
 6) “We love polar bears, just not as the star of the climate story”, www.climateoutreach.org, (2025년 9월 10일)

가 자연을 파괴한다는 메시지는 자연은 무해하고 순수한 공간, 도시는 환경파괴를 유발하는 위협적인 공간으로 고정화하는 이분법적 구도를 보여주는 것은 도시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환경을 오염을 유발하고 있을 수 있다는 죄책감과 내가 할 수 없는 일에 대한 무력감을 느낀다. 이런 상황에서 반복되는 메시지에 피로감을 누적시키고, 오히려 반응속도를 늦추는 프리징(얼어붙는) 효과를 유발할 수 있다.<sup>7)</sup>

넷째, 기후난민의 이미지이다. 기후난민의 모습은 배를 타고 국경을 넘는 이미지로 많이 표현된다. 기후변화로 인한 이동에는 여러 가지의 원인이 있다. 실제로 기후변화로 이주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국경을 넘지 않는다. 배를 타고 국경을 넘는 기후난민의 이미지들은 기후변화로 인한 이동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전달하지 못하고 기후난민은 무력한 피해자라는 인식을 강화하고 빈곤과 고통의 이미지로 고정시킬 수 있다.<sup>8)</sup>

② 바다의 권리를 전하는 ‘좋은’ 이미지의 고려사항

바다의 권리를 전하는 좋은 이미지는 어떤 것인가에 대한 논의에 앞서, 우리는 두 가지 질문에 대해 서로 의견을 나누었다. 첫 번째 질문은 “해양동물들의 의인화 괜찮은가”였으며, 두 번째 질문은 “북극곰이나 펭귄을 포함하여 피해받는 동물들의 모습을 부각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였다. 두 논의를 바탕으로 “그렇다면, 지금 바다의 위기와 권리에 말할 수 있는 좋은 이미지는 어떤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출되거나 가공된 이미지가 아닌 실제의 이미지를 보여준다. 실제의 이미지를 사용함에 있어 구체적인 장소와 일시(시점) 등이 포함하도록 한다.

둘째, 인간 중심적 시선으로 동물들의 행동을 해석하여 표현하지 않는다.

셋째, 신뢰할 만한 데이터에 기반한 이미지를 보여준다.

넷째, 한 개의 이미지로 다층적인 이야기를 전달하기 어렵다면, 여러 개의 이미지를 사용한다.

다섯째, 이미지로 누군가를 대상화할 때는 그 대상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표현한다.

이미지를 사용하는 매체와 상황은 매우 다양하다. 그렇기에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고려사항(가이드라인)으로는 충족하기 어려울 수 있다. 다만, 우리가 이미지를 사용함에 있어, 사용하는 이미지의 사용이 올바른지, 혹여 누군가를 편견적인 시선으로 대상화하지 않았는지에 대해 이미지 창작자나 사용자 모두 끊임없이 질문해야 할 것이다.

3) 모임 사진



7) “Paying attention to climate change: Positive images of climate change solutions capture attention”, [www.sciencedirect.com](http://www.sciencedirect.com), (2025년 11월 1일)

8) “Image problem: are we using the wrong photographs to illustrate migration and climate change?”, [www.climatemigration.org.uk](http://www.climatemigration.org.uk), (2025년 9월 10일)



5월 연구모임



6월 연구모임



8월 연구모임



9월 연구모임



10월 연구모임

### 3. 결론

2025년 10월 28일, 제주도 서귀포시 강정동에 위치한 공간에서 모여 여섯 명의 시선을 모으는 마지막 발제와 워크숍을 돌아보고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연구모임을 처음 참여할 때 가졌던 각자의 생각과 이후 모임을 통해 변화된 시선을 나누었으며, ‘연구’라는 단어에 갇히지 않고 자신의 분야와 영역에서 행해 온 일과 일상, 경험으로부터 나오는 생생한 언어로 이야기했다.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각자의 전문성도, 경험도, 표현 방식도 달랐지만 모임마다 공감의 대화가 가능했던 것은 결국 우리가 서로 다른 길을 걷고 있지만, 같은 지점을 향하고 있었기 때문이라는데 모두가 동의하고, 깊은 감사와 활동의 방향을 찾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여섯 개의 발제는 ‘자연의 권리’라는 공통된 주제를 바탕으로, 인간 중심에서 벗어나 비인간 생명과의 공존을 상상하고 실천하려는 다양한 고민과 시선을 제시했다. 자연을 단지 보호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야 할 존재’로 바라보는 감각의 회복이 여섯 시선의 공통된 지향점이었다. 핵심 키워드는 감각, 질문, 관계, 상상력, 제도, 표현이었으며, 이 여섯의 시선은 바다를 통해 세상을 다시 보고, 질문하고, 연결하며 살아가려는 시도였다.

특히, 각 모임마다 언제나 더 깊은 질문으로 채워졌는데, “공존은 어떻게 가능한가?” “인간 중심적인 시각에서 말하는 권리를 다시 정의해야 하는 것 아닌가?” “우리의 오랜 관습과 편견은 무엇을 지워왔고 또 누구를 배제해왔는가?”와 같은 질문들은 여전히 남아 있다. S.하딩은 “오늘날 제기되는 수많은 질문은 아직 제기되지 않은 질문들을 포함해 우리가 지향하는 세상에서 앞으로 찾아낼 대답들보다 더욱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1987)고 말했다.<sup>9)</sup>

이처럼 이번 연구모임의 발제와 대화를 통해 미처 우리가 보지 못했던 각 분야에서의 빈 틈과 공간을 함께한 동료들을 통해 알아차리고, 이후 각자의 활동과 일상의 언어로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질문을 계속하게 된 것은 어떤 답을 구한 것만큼 큰 성과이다. ‘연결된 바다들’에서 나눈 이야기들을 본 보고서에 다 담지 못하였다. 그것들은 이후 ‘연결된 바다들’을 넘어 더 많은 사람들과 연결될 수 있도록 책으로 엮어 배부할 예정이다.

9) 사피야 우모자 노블, 『구글은 어떻게 여성을 차별하는가』, (노윤기 옮김), 한스미디어, 2019, 55

[연결된 바다들] 구성원 소개

**그린씨**

2012년부터 우연과 필연으로 이어진 제주도 섬에서 2018년부터 제주 제2공항을 반대하는 숲과 마을을 이야기하고, 씨앗농사를 짓고, 생명을 그리며 생태적 삶을 살아가고 있다. 녹음이 짙은 오름에 올라 푸르른 먼 바다를 바라보기 좋아하며 바다를 대변하는 활동가, 디자이너, 작가들을 만나, 우리는 어쩌다 바다의 목소리를 듣지 못하게 되었을까? 질문하게 되었고, 이번 모임을 통해 좀 더 깊이 바다로 닿을 수 있는 용기와 마음을 얻을 수 있어서 좋았다.

**김보은**

대기업의 광고를 만드는 광고기획사에서 디자이너로 일하다, 어느 날 “대체 나는 누굴 위한 디자인을 하는 것인가”에 대한 질문으로 회사를 그만두고, 그 답을 찾고자 그린디자인을 공부했다. 2015년의 라운드트라이앵글을 거쳐 지금의 어라운드랩 디자인스튜디오를 소은과 함께하고 있다. 가리왕산 캠페인을 시작으로 환경 단체들과 디자인 협업을 이어왔으며, 환경적 영향이 적은 종이와 인쇄 방법을 제안하는 『종이 한 장 차이』(어라운드랩, 2019)를 만들고, 『제로의 책』(뚝과땀, 2021)에 필자로 참여해 “제로를 위한 디자인”을 썼다. 그 밖에 다양한 디자인 작업에서 어떤 디자인적 실천을 할 수 있는지 늘 고민하며 작업하고 있다. 때때로 컴퓨터 앞을 벗어나 현장에서 바다를 마주하고자, 추자도 바다의 상괭이를 기록하는 “상괭이편”의 멤버로도 함께하고 있다.

**김소은**

창작활동 속에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들이 무엇인지 고민하며 디자인을 하는 디자인스튜디오 어라운드랩의 멤버. 자주 환경단체와 협업하며 자연의 권리를 대변하는 활동가의 언어를 이미지로 통역한다. 바다를 사랑하는 어라운드랩의 또다른 멤버 보은 덕분에 자주 바다 언저리에 머물며 육지에 살고 있지 않는 내가 어떻게 바다를 말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있다.

**신수연**

바다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세상에 잘 드러나지 않는다. 강정 해군기지가 지어지는 과정에서 겹겹의 보호구역이던 바다가 ‘보호’ 공간에서 해제되고 매립되는 현장을 보았다. 나는 환경오염으로 건 강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이야기, 그리고 숲과 바다에 깃들어서는 존재들이 개발사업으로 위협받는 상황을 알리고, 막는 활동을 해왔다. 현재는 제주에서 ‘해양시민과학센터 과란’을 시작하고, 집중하고 있다. 바다의 주목받지 않는, 이름 없는 존재들의 말을 대상에 따라 적절한 언어로 바꾸어 말하는 작업엔 늘 고민이 따른다. 언어를 잘 직조하고 있는가. 절실한가. 바다와 숲을 닮은 이들을 만나 각자의 시선을 공유하는 이번 작업은 좁은 시야를 넓히는 과정이자, 각자의 시선의 내밀함을 배울 수 있는 배움터였다.

**신주희**

20대까지 뉴스를 보기를 싫어하고, ‘대안’이나 ‘활동가’라는 말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다. 지극히 개인의 편의와 쾌락을 중시하는 삶을 살았다. 우연한 기회로 사회문화 운동하는 이들과 어울리며 대안 문화를 접했다. 10여 년의 기간동안 세계 곳곳의 사회 문제를 마주하는 여행을 통해 곳곳에서 활동하는 ‘활동가’들을 만나고, 그들의 메시지에 동조하며 어느 순간 나도 ‘활동가’인가? 라는 생각이 들어 환경 활동을 시작하였다. 현재는 레저다이버들을 시민과학자가 될 수 있도록 유혹하고, 함께 산호와 해양생태계를 기록하고 보호하는 일을 한다.

나와 관련되지 사건, 대상에 후원하는 일이 부담스럽고 이해가 되지 않는 사람에서, 세상 모든 사

람에게 '해양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 후원하세요.'를 호소하는 사람이 되었다. 그것이 썩 맘에 들고 행복하다. 많은 사람들이 나와 같은 경험을 하길 바란다. 그러나 어떤 특정 경험이 나의 시선을 바꾸게 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아, 나의 동료들의 경험을 묻고 싶었다. 당신은 어찌다가 바다의 편이 되었는지? 그리고 당신을 이끈 그 경험과 관점들이 다른 이들을 우리의 동료로 만들 수 있게 하지 않겠느냐고.

### 홍상희

지난 20년간 TV 다큐멘터리를 제작해왔다. 구성작가로 일하며 KBS, SBS, MBC 등에서 사회와 자연을 주제로 한 프로그램을 집필해왔으며, 현재는 독립 다큐멘터리 영화 『오래의 바다』와 『고래 왕의 고백』 『상괘이의 바다』를 제작하고 있다. 제주에서 '돌핀맨' 일원으로 해양 보전 활동에 참여하며 바다 생명의 시선으로 세상을 기록하며 산다. 세상을 다르게 보는 나만의 '시선'을 찾아가는 길 위에서 오늘도 헤매고 있다.

+

청취자이자, 참여자

### 안주희

여러 일을 하고 관심 있는 분야의 모임을 참가하며 유유자적하며 지내는 내게 각두기 제안은 반가운 소식이었다. 무엇보다 3년 전 서귀포에 이사 오면서 바다를 지척에 두고 살게 되었고 '바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사람이 되고 싶던 시기였다. 바다와 밀접하게 관계를 맺고 생활하는 이들의 이야기들을 들으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활동가라는 말에는 힘이 있어 늘 응원하고 지지하게 되는데 모임 구성원 또한 그러했다.

회차가 진행될수록 이전에 하지 않던 행동을 하고 질문을 하게 됐다. 잘못된 행동을 하는 사람에게 일침을 가하며 불편한 존재가 되었고 더불어 동네 포구 바닷속 옛 모습을 질문하기도 했다. 보목에 있는 구두미 포구는 15년 전쯤만 해도 물풀이 가득해 밭에 비료로 썼다고 한다. 하지만 지금은 모래와 밀물 때만 보이는 물살이가 전부다. 잊힌 모습을 생각하면 씁쓸하다.